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부인과 함께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창전거리 종로동 1반 1현관 3층 1호에서 살고있는 평양기계대학 교원인 심동수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집에서 살고있는 행복만도 가슴벅찬데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주시니 무슨 말로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는 심동수와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방으로 들어서시였다.

언제 입사를 하였는가, 생활하는데 불편한것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면장에 들리시여 몸소 수도꼭지를 틀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은 어버이 장군님께서 터전으로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신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계시였으면 선참으로 찾아오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매 방들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안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집식구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방석을 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일없다고, 년세가 많은 할머니에게 깔아주라고,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시며 얹지 말고 건강하여 로동당시대에 장수하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집을 찾아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 가는것이 우리의 풍습이지만 성냥만 들고 올수 없어 가정용품들도 마련해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였다.

『세계명작동화집』들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은 잘 보관하였다가 앞으로 손주들이 태여나면 주라고 이르시였고 화면이 큰 멜레비죤은 가까이 앉아 보면 시력에 좋지 않다고 세심히 일러도 주시였으며 가정그릇목음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집안에 딸들만 있는가고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들인 심일철이 인민군대에 나가있다는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부인 한은순이 중학교 교원을 하고 딸들인 심선영, 심혜영도 모두 교원들이라는것을 아시고 교육자집안이라고 하시며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자기들에게 이런 궁전 같은 집이 차례로 짓출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가득 안겨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말씀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아야 하는 교육자가정은 응당 새 집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앞으로도 맡고있는 사업에서 성과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몸소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집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건강하여 오래 오래 앉아있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층 2호에서 살고있는 중구역도시미화사업소로동자 박승일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격정에 겨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식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직장은

어디에 다니는가를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두가 노동자들이라고 하시며 집안으로 들어서시였다.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아버지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면서 최대의 생활상편의가 보장된 현대적인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승일의 둘째 아들인 박훈을 무릎에 앉히시고 볼도 만져주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몇살인가, 집안에 아들이 한명뿐인가고 물으시였다.

중학교 3학년생인 맏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놓내서 운해 하시였다.

아이들이 자는 방파 공부하는 방에도 들리시여 둘째가 그런 그림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림을 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정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나라는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평백성이 온갖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싶다고 걱정을 터치는 집주인들의 이야기를 웃으시였다.

음속에 들어주시였다.

종전에는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았는데 5칸짜리 살림집에서 살게 되니 처음에는 이게 정말 우리 집이 옳은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고급가구들까지 일식으로 그릇이 갖추어져 있어 살림살이하기에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주인들이 좋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어버이 장군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훌리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 박원이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애가 온것이 못내 기쁘시여 어디에 갔다가 늦어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축구소년에 갔었다는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그애의 결의를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박승일의 부부에게도 축배를 부어주시고 몸소 마련해 가지고 오신 사랑의 선물을 남기시였다.

부인께서는 몸소 만들어 가지고 오신 음식들을 내놓으시며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하시면서 그 조리방법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세계명작동화집』들을 안겨주시며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야 한다고, 둘째는 자신께서 가르쳐준대로 그림을 잘 완성하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박승일, 장순녀의 가족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층 1호에 살고 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인 김혁영 문강순의 신혼부부가 정도 찾으시였다.

매 방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강순이 2009년 7월 30일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 장군님을 보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남편인 이 공장 3대 혁명소조원 김혁이 군사복무의 나날 부대에 찾아오신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지난 5월에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 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 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웃으시며 물어주시였다.

아들도 낳고 방직공용옹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는 세대주의 이야기에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새 집이 정말 좋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로동자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좋아하니 창전거리살림집들에 대해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혼부부에게 축배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주시였다.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눈물을 감잡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래여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과 개업을 앞둔 해맞이  
식당을 돌아보시고 능력확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자도서관의 여러 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도서관리용설래를 구체적으로 뜻해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전자도서관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방대한 양의 자료기지와 최첨단정보기술체계에 의거하여 학습과 최신군사과학연구사업도 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구비되어있는 전자도서관은 우리의 지적잠재력의 위력을 파시하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전자도서관이 정말 희한하다고, 만족한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도서관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전자도서, 일반도서, 신문, 잡지를 비롯한 도서들을 비치해놓은 것을 보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다매체능력은 얼마나 되며 보관, 보안체계는 어떻게 세웠는가도 물어주시였으며 열람탁을 보시면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리용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의 여러 관과 야외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무장장비관은 볼수록 훌륭하고 멋있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완공된 무장장비관에 어버이장군님을 모시려고 하였는데 그 소원을 풀지 못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력강화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무기, 전투기술기체로 장비시키기 위하여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를 희고하시며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잘 보존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우리 혁명의 종대역사를 뚜렷히 알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전망대에 오르시여 무장장비관을 부감하시면서 관리운영사업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관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부인과 함께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상품진열상태, 봉사계획, 레시피의 가지수와 질을 구체적으로 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파일과 남새, 우유 및 고기제품, 주류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돌아보시였다.

슈퍼마켓은 독특하면서도 정교하게 꾸려졌을뿐만 아니라 진열도 특색있게 하

였다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표본이 될수 있게 잘 꾸렸다고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간이매대에 들리시여서는 강병이튀기의 냄새가 구수하다고 하시면서 품소 그 맛도 보아주시였다.

대중식사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식당을 돌아보면서 관업준대로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이 나게 천정조명과 벽장식, 비품배치를 잘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철판버거비빔밥을 보아주시면서는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였다.

선도가 좋은 물고기들과 여러가지 부위별 육고기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육류 및 수산물상점도 깊은 주의속에 돌아보시였다.

특색있게 시공한 회전식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레시피들을 봉사하는 개별식사실들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다.

맛좋고 품질높은 여러가지 빵들을 판매하는 매대에 이르시여서는 위생성과 편의성을 완벽하게 보장할수 있도록 진열장을 참조적으로 독특하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커피점에 들리시여서는 의자에도 몸소 앉아보시고 커피점의 특성에 맞게 안온하게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맞이식당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과 당의 의도에 맞게 손색이 없이 식당을 잘 꾸린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 주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해맞이식당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관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능력확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관정들이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설비들의 가동상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수십만m<sup>2</sup>의 생산능력을 가진 미정석직장, 인조대리석타일직장 등이 자리잡고있는 생산건물에 들리시였다.

고급건재인 미정석을 생산하는 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규모성분이 많은 모래나 돌이 첨가제에 따라 투명유리로도 될 수 있고 색갈과 문양이 고운 유리돌인 미정석으로도 될 수 있다는 일군들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천연대리석과 꽃같은 색깔과 문양을 가진 대형인조대리석타일을 생산하는 공정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타일우에 유리물을 입히는 방법으로 생산해낸 대형유리복합타일들과 전재품들에 여러가지 문양과 장식을 하는 첨단 설비들의 가동정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타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창전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각종 타일과 기와를 생산보장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2단계 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전재공업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생산정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컴퓨터로 생산지휘를 하고있는 종합지령실에 들리시여 자동화, 흐름식화된 생산공정을 보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외벽타일, 내벽타일, 바닥타일, 대리석타일을 생산하는 직장들도 돌아보시였다.

조선기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기와를 흐름식으로 생산하고있는 기와직장에서도 들리시여 설비들의 가동상태와로 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구내에 있는 타일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여러가지 장식타일을 보아주시면서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미적요구가 높아지고 건설공법도 변한다고, 그 전에는 벽에 도배지를 바르는것이 기본이였는데 오늘은 장식타일로도 처리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공장을 돌아보니 이곳 일군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궁지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밀고 나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대동강타일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라는 애국심이 자신의 마음을 후덥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타일공장은 굴지의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타일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당 부문에서도 대동강타일공장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과 조선인민내무군녀성취주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흥분 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울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연주회에서는 취주악 《높이 날려라 우리들의 당기》,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조선인민군가》, 《하늘의 방파》우리가 되리》,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 《우리의 행군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외국곡들이 《물결우에서》, 《칼춤》을 비롯한 곡목들이 연주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자기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조연주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림으

로써 조선인민군군악단을 세계적인 군악단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향한 보람찬 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내무군녀성취주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울리는 《우리를 보라》의 힘찬 주악에 맞추어 원수별을 새기며 녀성취주악단의 입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취주악 《높이 날려라 우리들의 당기》,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시작된 연주회에서는 트럼펫트독주 《한마음 따르렵니다》, 취주악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평도자》, 금관4중주 《장군님 백마하고 달리신다》, 트롬본독주 《내가 지켜선 조국》, 전시가요련곡 《조국 보위의 노래》, 《전사와 처녀》, 《전차 병과 처녀》, 《진군 또 진군》, 《샘물터에 서》, 《어머니의 노래》, 《아무도 몰라》, 《뽕따라 가세》, 취주악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소편성취주악 《감사의 노래》, 취주악과 를동 《젊음은 급행렬차》, 《나가자 조선아》를 비롯한 곡목들이 연주되었다.

연주회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해 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아 힘차게 울리는 취주악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주악으로 끝났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울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연주회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녀성취주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선군조선의 기상과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녀성취주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혁명군악소리를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림으로써 천만군민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 수행에 불리일으키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녀성취주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혁명군악소리를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림으로써 천만군민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 수행에 불리일으키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결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은

주제 101 (2012) 년 9월 5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 문선명선생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주제 101 (2012) 년 9월 6일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자주로 존엄높은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 램홍색 공화국기가 찬연히 나붓긴다.

공화국 창건 64돐에 눈앞에 둔이 시각 사람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강국으로 자랑떨쳐온 공화국의 지나온 60여년사를 궁지와 자부심 속에 감회깊이 되새겨보고 있다.

돌이켜 보면 공화국이 오늘과 같은 강국으로 당당히 세계무대에 나설수 있은 것은 자주를 생명으로 삼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혜세의 영장을 대대로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이 땅우에 자주로 강대한 나라,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고 부강번영의 만년도대를 닦아놓으신 건국의 어버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이루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재생의 화회가 약동하는 이땅에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주시었다.

력사의 그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퇴성처럼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의견을 듣고 해제를 내놓아야 한다!… 그때부터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정도밀에 온갖 도전과 장애들을 박차고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출기차게 달려왔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는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주체의 로선과 방식대로 진행하고 덤벼드

#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

는 원쑤들도 주체의 전략과 전법으로 타승하시며 군대와 인민을 자주정신의 강자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조국이 천리마를 타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질풍같이 치달아오르게 된 것도 수령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인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숭고한 애국현신으로 한생을 불같이 살았던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 인민들의 얼굴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그런 시상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는 래일도 현지지도를 떠나려고 한다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래일을 향하여 나는 기발을 들고 앞으로만 내달리겠다고 뜻겁게 말씀하시며 초강도현지지도 강행군길을 걸고걸으시였다.

우리의 결음이 떠지게 된다고, 조국의 전진이 떠지게 된다고, 날씨나 보아가면서 편안한 걸

음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세계가 평서지를 찾아가는 무더운 삼복철과 강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날까지도 쉬지 않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인공지구위성이 두번째로 우주에 날아오르고 핵퇴성이 두번째로 이 땅을 전감하던 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리 인민이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니셨던 자주정신, 이런위천의 승고한 리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몸부림치는 인민들을 따뜻한 사랑의 힘 품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뱉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념원이 태동하는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갈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다지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서거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명인』으로 되시였고 『현세계의 10대 명인』으로도 선정되시였다.

그이의 영상과 미소, 몸가짐 까지도 김일성주석과 꼭 같으시다.

국제사회는 『현대 정치가, 현대군사가의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청년령도자의 출현으로 김정은원수께서 시작되었고』고 평하고 있다. 『김정일각하의 서거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명인』으로 되시였고 『현세계의 10대 명인』으로도 선정되시였다. 그이의 영상과 미소, 몸가짐 까지도 김일성주석과 꼭 같으시다.

본사기자 리경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감회깊이 들이켜본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이 나라의 하루는 『애국가』의 장중하고도 은은한 선율속에 시작된다. 이른아침 누리를 물들이는 해살과 함께 강산을 깨우며 려명을 알리는 박동이 라지오의 전파를 타고 흐르는 『애국가』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장의 공연무대는 물론이고 인산인해를 이룬 집회장이나 대회장에서도 울리고 지경넘어 승부겨루기의 체육무대에서 선수권을 개최하고 시상대에 오른 우승자들

이 펼치는 조국의 명예도 램홍색국기와 함께 『애국가』가 있다.

『애국가』는 기나긴 세월력을 안고 시대를 안고 조국의 번영과 존엄과 더불어 아버이친 조국찬가이다.

『애국가』가 처음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눈에 익고 귀에 익고 심금을 울린것은 어언 예순다섯해 전이다.

…사람들은 자못 상기되어 있었다. 국가를 시청하게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만큼 청중들의 기대와 관심은 여간 아니었다. 더욱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선례에 나오자자 푸풀 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장내는 다시금 물을 뿐만 아니라 조용해졌고 곧 국가가 연주되었다. 이를답고 우아하고, 장중하고 은은한 선율은 사람들의

## 애국충정의 조국찬가

온 나라가 해방의 환희와 전국으로 들끓던 어느 날 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을 만나시고 지금 인민들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기쁨과 감격을 목청껏 노래하고 싶어하며 『애국가』를 요구하고 있다시며 하루빨리 『애국가』를 만들도록 할데 대해 이르렀다.

그리고는 노래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들려주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산들은 거세차고 장엄하며 전원에는 오색백화가 무르익는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 금은 보화도 무진장하다. 우리 인

마음을 휘저었다.

노래를 다 듣고나신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오늘에야 『애국가』가 나왔다고, 인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느라면서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 오를것이라고 하셨다.

그의 말씀을 접하는 창작가들에게는 창작의 나날에 있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애국가』창작의 시작은 몇몇전이었다.

그이의 말을 접하는 창작가들에게는 창작의 나날에 있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그이의 가르치심과 인민들의 비등된 건국열의에 고무된 창작가들은 조국의 경

민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로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경주의 첨성대, 금속활자의 발명, 아름다운 미술로 일찍부터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

그이의 가르치심과 인민들의 비등된 건국열의에 고무된 창작가들은 조국의 경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노래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차량차게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애국가』는 수령님께서 창작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용이 한구절, 한구절 그대로 가사화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절세의 애국자의 심증에서만 한편의 노래에도 조국을 다 담을수 있는 명가사가 나올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진정한 애국자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창작적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내가 노래의 가사를 만들기는 했으나

수천년 동안 인류는 하늘에 그 어떤 신비한 존재나 힘이 있어 천지만물을 만들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과학적세계관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하늘은 곧 신이었고 하느님이었다.

통치배들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세계관을 악용하여 저들을 『천황』, 『천자』로 자처하면서 『하늘의 의사』,

『하늘의 의지』에 인민들을 무조건 복종시키려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날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당하며 착취와 억압속에 살아온 인민을 『하늘』로,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였다.

일찌기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편의 노래에 살아온 인민을 『하늘』로,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세상사람들이 송상해온 하늘과 같은 존재였으며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수 없는 그이의 숭고한 천품이었다.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나 대하시여도 인민의 리익에 맞는 가부여 먼저 혜아려보시는것이 장군님의 인민관이다.

어느해 여름철이였다.

새로 꾸린 보통강상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깥과는 대조되게 시원한 상점안의 온도를 가늠해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문

득 랭풍을 어떻게 보장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랭운풍기 4대로 보장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1층 매장의 출납원에게 가시여 출지 않은가고 다심하신 어조로 물으셨다. 뜻밖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그가 좀 추운감을 느끼지지만 일없다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는 일관리자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파일을 랭동할 생간만 했지 사람들이 추워할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고 하시면서 무슨 일에서나 사람이 기본이라고, 상점의 봉사자들은 이곳에서 하루종일 판매하여야 하는데 파일보다 먼저 사람의 건강부터 생각할줄 알아야 한다고,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고 뜻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귀한 편지와 함께 봉사를 해보려는 아버지처럼 출납원에게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이를시고는 손수 랭운풍기의 방향날개를 웃쪽으로 조절해주시기였다. 그 누구도 혜아려보지 못한 상점안의 공기문제를 두고도 그처럼 걱정하시며 마음을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

언제나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시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인민의 리익에 맞는 가부여 먼저 혜아려보시는것이 장군님의 인민관이다.

어느해 여름철이였다.

새로 꾸린 보통강상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깥과는 대조되게 시원한 상점안의 온도를 가늠해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문

득 랭풍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재정부문 일군의 의견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봐야 한다. 그러나 타산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때나 수완한부터 먼저 뛰기지는 말아야 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별옷이 라도 들어서 자식들에게 웃을 해야하고 쌔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였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람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님도 더 해줄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밀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계산방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인민의 어버이, 사랑의 화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보살펴십속에서 새로 개발된 유통명승지를 찾은 외국의 한 정치활동가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절경을 이룬 명승지가 발굴되면 그것은 응당 대통령의 별궁이나 퍼서지가 되며 평범한 인민들은 와서 구경할 일도 아니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수억만의 돈을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전환된다. 그러나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

시였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 어느 곳을 찾으시여도 인민들과 허물없이 앉으시여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신성한 조국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물어오려는 제국주의자들을 전률케 하시며 판문점과 최전연부대들에 대한 헌신적인 시찰을 진행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몸부림치는 인민들을 따뜻한 사랑의 힘 품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뱉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념원이 태동하는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갈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다지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서거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명인』으로 되시였고 『현세계의 10대 명인』으로도 선정되시였다. 그이의 영상과 미소, 몸가짐 까지도 김일성주석과 꼭 같다.

국제사회는 『현대 정치가, 현대군사가의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청년령도자의 출현으로 김정은원수께서 시작되었고』고 평하고 있다. 『김정일각하의 서거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명인』으로 되시였고 『현세계의 10대 명인』으로도 선정되시였다. 그이의 영상과 미소, 몸가짐 까지도 김일성주석과 꼭 같다.

로씨야의 『현대 정치가, 현대군사가의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청년령도자의 출현으로 김정은원수께서 시작되었고』고 평하고 있다. 『김정일각하의 서거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명인』으로 되시였고 『현세계의 10대 명인』으로도 선정되시였다. 그이의 영상과 미소, 몸가짐 까지도 김일성주석과 꼭 같다.

세계에 조선의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처럼 인민들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위인은 없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며 숭배하신 장군님의 인민사랑, 헌신의 일화들을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쓸 수 있겠는가.

오직 인민을 위해 대소한의 추위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므로 초강도 강행군길을 끊임

# 치욕의 67년, 미군강점사를 끝장내야 한다

미군이 『해방자』의 너울을 쓰고 남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67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전파국도 아닌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열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조성된 정세를 이용하여 조선반도 남쪽 절반이라도 먹어보려고 『분할령안』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38°선 이남을 강점하였다.

57년의 역사국이고, 통일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국제협정도 아닌 단 두명의 미군장교에 의해 그어진 『선』에 따라 허리가 잘리우게 되고, 일개 미군사령관에 불과한 맥아더의 『일반령 1호』에 따라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분열국으로 된 것은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우리 나라를 영구분열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 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조선에 리승만 친미 『정부』를 세웠으며 공화국북반부까지 집어삼키려고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침폐를 당한 미국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전후에 들어와 분별과 대결, 전쟁책동에 더욱더 매달리였다.

미국은 1960년대에 『가자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 밑에 남조선에서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5·16 군사쿠데타』를 조작하여 그에 찬서리를 내렸으며 1970년대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천명된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에 전면적으로 도전해나섰다.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바즈워스는 북남수뇌상봉파관련 한 학자가 처음 공개되자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우방간에 있을 수 없는 일』, 『4·8 합의서에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 월회하라고 고아였으며 『미국에서는 기본 나쁜 일』이라고 행패질까지 하였다.

얼마전에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국이 플루토니움과 핵폐기물을 대량의 방사능물질을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살포하여 그 누구도 접할 수 없는 『비인간지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강도를 북과 남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한 사실이 폭로된 것은 미국이 애말로 극악한 핵사이다. 맹진이 종식되고 분

되며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졌을 때에는 반공화국 혁소동으로 그것을 가로막아버렸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킨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파

과 6·15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에 전면적

으로 도전해나섰다.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바즈워스는 북남수뇌상봉파

관련 한 학자가 처음 공개되자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우방간에 있을 수 없는 일』, 『4·8 합의서에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 월회하라고 고아였으며 『미국에서는 기본 나쁜 일』이라고 행패질까지 하였다.

얼마전에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국이 플루토니움과 핵폐기물을 대량의 방사능물질을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살포하여 그 누구도 접할 수 없는 『비인간지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강도를 북과 남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한 사실이 폭로된 것은 미국이 애말로 극악한 핵사이다. 맹진이 종식되고 분

되며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졌을 때에는 반공화국 혁소동으로 그것을 가로막아버렸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

킨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파

과 6·15 북남공동성명이 발표

되었을 때에도 이에 전면적

으로 도전해나섰다.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바즈워스는 북남수뇌상봉파

관련 한 학자가 처음 공개되자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우방간에 있을 수 없는 일』, 『4·8 합의서에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 월회하라고 고아였으며 『미국에서는 기본 나쁜 일』이라고 행패질까지 하였다.

얼마전에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국이 플루토니움과 핵폐기물을 대량의 방사능물질을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살포하여 그 누구도 접할 수 없는 『비인간지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강도를 북과 남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한 사실이 폭로된 것은 미국이 애말로 극악한 핵사이다. 맹진이 종식되고 분

## 북남관계파괴자들의 『도발』 타령

얼마전 남조선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남북경협 24주년 현안과 전망』이라는 토론회하는데서 통일부 차관이라는 자가 북남관계 악화의 원인은 『북의 지속적인 도발』에 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덩달아 여러 어중이떠중이들도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잘되지 않는 것이 공화국에 문제라고 떠들어댔다고 한다.

민족에 대坝와 저지른 자들의 가증스러운 궤변이며 대결악습이 체질화된 반통일 무리들의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도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조선당국자들은 입이 100개라도 할 소리가 없다.

알려진 것처럼 현 남조선 보수당국은 집권한 첫날부터 민족적 혐화와 단합의 기치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해나서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적 및 군사적 도발을 매일과 같이 벌여왔다.

그 누구의 『급변 사태』 설을 운운하며 『통일대계 탐색 연구』, 『비상통치계획-부총』과 같은 불순한 반공화국 결각본들을 꾸며냈는가 하면 『통일현법』 작성이나, 『통일세』 도입이니 하면서 『흡수통일』 암망을 모글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리명박의 적폐당이다.

2010년 3월 저들이 조작한 『천안』 호침몰 사건을 구실로 최대 열점지역인 서해 지역에서 공화국의 주요 대상들을 목표로 한 해상사격훈련, 해안상륙연습을 비롯한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행해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축족

김철호

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가판인 것은 리명박의 적폐당이 저들의 눈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격분케 하는 악마적인 민간적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며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그 누구에게 아래자래라 간찰하는 역적 폐당이 애말로 동족대결만이 꼬리까지 찬 저능이가 틀림없다.

사실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강력 범죄 사건들은 리명박 일당의 반인민적 악정과 썩어빠진 사회제도 자체에 그 원인이 있으며 역적 폐당이 고아하고 있는 『북인권』 망동은 이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임을 다시 한번 실증하고 있다.

리명박 일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세상을 놀라우는 흥악 범죄는 그칠 새 없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서철수

본사기자 주광일

최근 남조선에서 폐륜파의 끔찍한 성폭행 범죄가 런던에 일어나 커다란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중순 남조선 각지에서 여성들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살인행위와 성폭행이 험하게 발생한데 이어 8월 31일에는 전라남도

라주에서 7살 난 『초등학생 람치성 폭행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남조선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생인 이 학생은 전날인 30일 오전 잠을 자던 중 이불체로 람치되어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강가에서 발견되었는데 대장 등 몸의 주요 부분들이 파열되어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

리명박의 반인민적 악정과 고질화된 사회악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알려지다 싶어 리명박은 2007년 12월의 17대 『대선』에서 『대통령』 명거지를 뒤집어쓰기 위해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는 수많은

지금 남조선의 일부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 애벌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앞장에는 공화국을 배반한 자들이

여기에서 『세 누리당』 의원 조명철은 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건을 『국가인권 위원회』에 신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북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2005년부터 8년간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목이 쉬도록 고하였다.

조명철로 말하면 조국과 고향, 부모형제, 친구들을 버리고 월남도주한자로서 인민의 초보적인 양심과 의리, 도덕마저도

가리우려는 씩은 너두리뿐이다. 부귀와 영

달을 위해서라면 저를 낳은 어머니의 얼굴에도 거리낌 없이 침을 맡고 조국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이런 자가 감히 인권에 대해 둘 수 있다. 말인가.

조명철은 비롯한 월남도주한자들은 천벌을 받을 추악한 반공화국 광대국인 『인권 대령』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이 최근 남조선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의 범인들 대다수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범죄자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들을 없애겠다는 등 수백 가지 달콤한 유혹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리명박의 권력의 자리에 앉자

『공약』들을 내흔들었다. 거기에는

파산에 직면한 남조선 경제를 되살리고 『고도 성장』을 이루려는 남조선을 『신진국』으로 만들며 해마다 수십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들을 없애겠다는 등 수백 가지 달콤한 유혹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리명박의 권력의 자리에 앉자

『인권 불모지는 남조선』

마자 제벌들과 특권 죽족들을 위한 정책만을 추구하면서 근로인민 대중의 어려운 생활처지는 아예 거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범죄 사건이 꾀리

아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자본주의 약육강식이 생존 방식으로 지배하는 남조선 사회제도 역시 온갖 사회 악을 산생시키는 온상으로 되고 있다.

리명박의 집권한 후 이러한 사회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없이 사람들을 마구 폭행하고 칼로 찔러죽이는 이른바 『문지마 살인 사건』이 여러 건이나 발생한 사실은 씩어빠진 남조선 사회제도의 실상

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가판인 것은 리명박의 적폐당이 저들의 눈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격분케 하는 악마적인 민간적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며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그 누구에게 아래자래라 간찰하는 역적 폐당이 애말로 동족대결만이 꼬리까지 찬 저능이가 틀림없다.

사실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강력 범죄 사건들은 리명박 일당의 반인민적 악정과 썩어빠진 사회제도 자체에 그 원인이 있으며 역적 폐당이 고아하고 있는 『북인권』 망동은 이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임을 다시 한번 실증하고 있다.

리명박 일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세상을 놀라우는 흥악 범죄는 그칠 새 없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리명박은 강조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강릉무기인 F-35』 도입 중단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통일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호전 광들을 단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8월 31일 서울에서 평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모두가 열쳐나서 전쟁 미치광이들의 종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땅에서 전쟁위기를 겪어내고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이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강릉무기인 F-35』 도입 중단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통일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리명박 『정권』이 미국과 국제 전투기 F-35를 새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용을 통해 서도 잘 알 수 있다.

『국방 개혁 기본 계획』은 철두철미 북침무력 증강 계획이며 또 하나의 전쟁 각본이다.

남조선 호전당국의 국악한 대결책으로 정세가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벌어진 『국방 개혁 기본 계획』 발표음을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 고취와 전쟁위험을 가일중 증대시키는 엄중한 도발적 행위이다.

남조선 호전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려는 것은 그들의 북침전쟁망기가 국도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남조선 호전당국이 위험 천만한 무력 증강 계획을 짜놓고 그 누구를 어제 보려는 것은 상태를 너무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다.

한사고 등으로 엇서며 대결의 칼을 떠리는 전쟁 광신자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리광성

##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엄중한 도발 행위

최근 남조선 국방부가 이른바 『국방 개혁 기본 계획(2012~2030)』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난 2009년에 수립한 『국방 개혁 기본 계획(2009~2020)』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정보충한 것이다. 군

